한돈자조금

porkboard.han-don.com

vol 1242

한돈산업을 지키는
한돈농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6

22

CONTENTS

28

26

32

04
한돈 SPECIAL

14
한돈 NEWS

26
한돈 PLUS

04
기획특집
2세 경영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차세대 한돈산업을 이끌기 위한 2세 경영, 후계자 양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08
숫자로 보는 사업 이야기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한돈자조금이 진행하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0
주요 활동 소식
2022년 5월 · 2022년 6월 한돈자조금 주요 활동
한 달 동안 한돈자조금의 주요 활동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11
핫이슈
2022년 예산안 승인
한돈자조금의 2022년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알아봅니다.

12
한돈자조금 성과 분석
한돈자조금 성과 분석 중간 보고
2021년 한돈자조금에서 진행한 사업들의 성과를 확인해 봅니다.

14
TV 속 한돈
여름철 몸보신에 좋은 한돈 선물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등장한 한돈의 이야기를 짚어 봅니다.

16
한돈 소식
한돈자조금 대의원 보궐선거
삼겹살 가격 상승에도 도산 위기에 직면한 농가 많아져
한돈자조금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행사 등 다채로운 뉴스

22
위너스 한돈농가
우성팜 이상도 대표
생산성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성팜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26
한돈인증점
화덕고깃간 역삼본점
자리마다 화덕을 설치한 독특한 콘셉트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화덕고깃간의 이야기

28
청년이 뛴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에코팜 노범균 대표
성공적인 2세 경영을 하고 있는 에코팜 노범균 대표의 한돈농장 경영 이야기

30
돼지 질병 관리
코로나 백신 맞는다고 코로나 안 걸리나?!
건강한 돼지를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질병 관리 이야기

32
한돈 HMR 레시피
한돈 삼겹살 활용요리
부위별 한돈 요리법을 알아보는 시간, 한돈 삼겹살 활용 요리

34
추천도서
한 권으로 보는 돼지고기 역사와 문화
고기매니아들이라면 꼭 읽어 봐야 할 고기의 역사와 부위별 소개

35
독자마당

June 2022 Vol.1242

매월
15일 발행
발행일
2022년 6월 15일 발행 (통권 1242호)
발행처
대한한돈협회
06643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3층
제작
디자인신화 02-324-6852

2세 경영을 위한 세 가지 조건

국내 축산업의 전업화는 1980년대 본격적으로 시도되어 1990년대 구조 조정기를 거쳐 2000년대 확립되었고, 이후 규모화가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돈업도 1980년을 전후한 때를 창업기로 본다면 당시 20~30대 청년양돈인들 중 상당수가 4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70대 중반의 나이가 되면서 세대교체를 준비해야 할 때라 할 수 있다.
세대교체 이슈는 향후 축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글. 김재민 편집장
농장에서 식탁까지/팜인사이트
maskman@safestory.co.kr

세대교체 세 가지 방향

현재 양돈업의 세대교체는 양돈농가의 2세에게 농장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을 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국내 양돈 분야의 경우 2세 경영뿐만 아니라, 농장 매각을 통한 세대교체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존 양돈농가가 양돈장을 인수해 규모화하는 경우는 세대교체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좀 규모가 있는 양돈장의 경우 국내 축산기업의 투자를 받아 기업화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세대교체의 주체는 배합사료 회사나 양돈계열화 사업체 등이 주류를 이룬다.
양돈 관련 일에 종사하다가 2세 경영에 실패한 한계 농장을 매입해 양돈농장 경영자로 변신하는 예도 상당수 있다. 대게 50대 전후의 배합사료 업계 종사자나, 종돈 업계 종사자가 세대교체의 주체가 된다. 양돈 관련 업계에서 양돈장을 경영하기로 마음먹은 이들 대다수는 양돈업의 가치와 미래를 발견했다 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사육기술 등을 익혀 왔기 때문에 곧바로 성과를 내게 된다.

후계 양성

2세 경영 왜 실패하나!

2세 경영 실패는 2세들이 양돈장을 잘 운영하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2세에게 양돈장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외부 주체에 양돈장을 매각하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한다.

자녀세대가 양돈장 인수에 관심이 없는 상황 중 하나로 농업에 대한 미래 전망을 어둡게 보는 부모세대의 생각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경우다.

이러한 부정적 사고는 자녀 세대에 알게 모르게 전달되고 농촌과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축산현장과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

양돈업의 미래가치를 진작에 알아차린 경영주의 경우는 양돈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녀들에게 전파되면서 자녀들의 대학진학도 자연스럽게 농과대학이나 축산 관련 학과를 선택하고, 농장 경영에 조금씩 관여하면서 2세 경영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보통은 이러한 농가의 경우는 농장 경영도 알차게 하며 적정 수준 이상의 성적과 소득을 올리며 2세 경영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지속 가능

충분한 소득과 경영 안정

2세로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장 경영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양돈업계의 경우 수급 상황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에 맡긴 경영이 많은데, 중단기적 불황도 이겨낼 수 있는 생산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 어떤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려야 자녀 세대에게 양돈업을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성이 개인의 노력 측면이라면 다른 부분에서는 공동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단기적 불황을 벗어날 수 있는 수급 조절, 가격 변동에 대응한 안정제나 보험, 가축 질병을 차단할 수 있는 국가적 대응 능력 등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바로 그렇다.

언제든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면 2세 경영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일도 결국은 앞선 세대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개념을 축산업계도 오랫동안 이야기했지만, 이 개념에 충분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지속 가능한 경영, 지속 가능한 개발은 1987년 유엔의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담긴 개념으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라고 정의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양돈업계가 처한 상황은 현세대가 미래 세대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지속 가능하지 못한 성장을 해왔다 할 수 있다.

양돈장 건설 소문만 나와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사실상 신규 양돈장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 등 지자체의 거리두기 조례로 인해 양돈장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 관련 시설이 신규로 건설되는 것이 가로막혀 있다.

여기에 각종 환경 관련 규제, 방역 관련 규제가 더해져 농가를 옥죄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규제의 종류가 늘어나고 강도가 세지는 이유는 결국 반복해 제기되는 민원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돈장 냄새가 문제가 되어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는데 냄새 민원이 줄어들지 않으면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기존 규제의 강도를 조금씩 높이는 식으로 공무원들은 대응하기 마련이다.

양돈장 역시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고, 공무원들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는 결국 악취관리지구 지정이나 사육 제한 같은 극단적 제도가 등장하게 만들었다.

현세대가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두고 환경관리를 해오고 지역 주민의 민원에 긴밀히 반응했다면 축산업을 둘러싼 강한 규제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현세대가 양돈업을 시작했던 1980년대~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양돈농가들이 돼지를 더 많이 키우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다. 지금과는 정책의 온도 차가 심한데 지속 가능한 농장 경영을 해오지 못한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두고, 주변 이웃의 불편함에 반응하는 일은 차세대 양돈농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2세 경영의 시사점

2세 경영을 촉진하는 일은 현 경영주의 양돈업에 대한 건전하고 긍정적 사고를 갖는 일에서 시작된다.

여기에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경영 안정을 위한 개인의 노력(생산성 향상)과 공동체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두고 주변 민원을 해결해 가는 모습이 현세대에 요구된다.

사회적 책임

한돈이 이끄는 먹거리 한류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돈 생산량 및 재고 증가로 인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업체에게 물류비를 지원하며 한돈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특히 한돈 수출 품목 중 뒷다리살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내 수급 안정에 이바지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1962년 수출 시작

우리나라 돼지고기는 1962년 홍콩으로 처음 수출했습니다. 그 뒤 1972년, 일본 수출길이 열리면서 돼지고기 수출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11개국 수출

현재까지 한돈(가공품 포함)을 수출했거나 가능했던 국가는 홍콩, 알바니아, 일본, 러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몽골, 아랍에미레이트,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입니다. 하지만 이 중 홍콩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현재 수출이 중단되거나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2020년 수출물류비 지원 재개

2013년 양돈수급안정자금 수출지원이 중단되면서 2015~2016년은 한돈자조금 재원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을 진행했었으나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다행히 2020년 한돈자조금의 노력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이 재개되면서 수출산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190% 상승

한돈자조금의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한돈 수출업체 참여 증가, 수출 품목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사업 시행 후 1년 만인 2021년에는 수출 물량 190%, 수출 금액 79%를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80% 뒷다리살 수출

한돈자조금의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수급 안정입니다. 한돈 수출 물량의 80%가 뒷다리살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년 만에 24% 증가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1,742톤 수출

한돈 수출은 2020년 601톤에서 2021년 1,742톤이라는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수출 품목 역시 기존 삼겹살, 목심, 햄소시지에서 냉장 및 냉동지육, 부산물(A지방, 족발, 등뼈 등), 육가공품(시즈닝삼겹살, 캔햄, 염장케이싱, 불고기, 패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9개 업체 지원

2022년 1분기 한돈자조금의 수출물류비 지원 업체는 9개입니다. 이 업체들의 1분기 수출실적은 221.7톤으로 정육, 육가공품, 부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뒷다리살 수출은 49.4톤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5월·2022년 6월

한돈자조금 주요활동

5월 주요 활동 결과

- **TV 광고**
  - 22년 상반기 TVC 매체 집행(5월~)
- **디지털 광고**
  - 한돈몰 할인행사 온라인 광고 진행(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 등)
- **옥외 및 스포츠 마케팅**
  - 이마트 내 옥외광고 및 축산코너 행잉배너 운영
  - 코엑스 언더월드 파노라마 옥외광고 집행(TV라디오 광고 협력사 서비스)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협찬**
  - 강철부대2- 전우회 협찬(5/31 방송)
- **제휴마케팅**
  -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 운영(5/13)
- **언론홍보**
  - 삼겹살 가격상승 이슈 대응 설명자료 및 기획기사 배포(5/20)
  - 가정의달 이벤트 및 한돈 케이크 홍보
- **사업관리**
  - 1차 한돈자조금 기획위원회 개최(5/31)
- **〈소비 활성화-한돈몰〉**
  - 한돈몰 기획전 운영
    - 캠핑 기획전 (4/6~5/25)
    - 한돈 선물세트 기획전 (4/25~5/20)
  - 미니멀웍스 협업 라이브방송 (5/6)
    - 캠핑 참가 250팀 대상 홍보 진행
  - 캠핑 서포터즈 운영 (4/18~5/20)
    - 서포터즈 활동 내역, 미니멀웍스 협업 결과 보고, 활용안 협의 중
- **한돈 BI 사용 신청업체 심사/승인**
  - 더본코리아, 견우푸드
- **신규인증점 현장심사(23개소) 및 홍보물 배부**
- **제2차 관리위원회 개최 (5/11, 대전 유성호텔 별관3층 킹홀)**
- **대의원 보궐선거(5/25~27) 및 당선자 공고(5/28)**
  - 15개 선출구, 17명 무투표 당선
- **22년 사업 계획 공시(농식품부 승인 기준)**

6월 주요 활동 계획

- **TV 광고**
  - 22년 상반기 TVC 매체 집행(6월~)
- **디지털 광고**
  - 한돈몰 6월 할인 기획전 온라인 광고 진행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 등)
  - MBN '돌싱글즈3' 제작지원(6/26)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협찬**
  - 강철부대2- 전우회 협찬(6/7 방송)
- **PR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ESG 일러스트 공모전(6/13~7/31)
  - 2022 미트엑스포 한돈 홍보 부스 운영(6/16~18)
- **언론홍보**
  - 삼겹살 가격상승 이슈 모니터링 지속 및 대응
  - ASF 모니터링 강화 및 부정이슈 모니터링
  - 세계환경의날(6/5) 계기 기획기사 배포
  - 농림부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6/23)
- **사업관리**
  - 2022년 상반기사업 평가 및 하반기 사업 추진 검토(내부 워크숍 등 추진)
- **조사연구**
  - 2021 한돈자조금 성과분석 중간보고회 개최(6/7)
- **〈소비 활성화-한돈몰〉**
  - 한돈몰 기획전 운영
    - 전국 팔도 한돈 기획전 오픈 (6/2)
    - 애돈인 기획전(5/26~6/24)
  - 캠핑 기획전 연장⇒ 상시몰 운영
- **한돈 BI 사용 신청업체 심사/승인**
  - 보담, 서귀포축협 등

2022년 한돈자조금
사업계획 최종 승인

예산 376억 9,072만원 확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2022년도 한돈자조금 사업계획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내역이 공시되었다.

예산안 개요

사업명 **한돈자조금사업** | 사업주관기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업기간 **22.1.1~22.12.31**

180억 9,200만원 | 53억 5,000만원 | 139억 4,872만원

농가거출금
도축두수17,600천두(모돈수989천두 × MSY17.8두 기준) × 1,100원/두 × 거출률95%
정부지원금 53억 5,000만원(전년동일)
이익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139억 4,872만원

수급 안정을 주문

소비홍보, 수급안정 등 8개 항목의 총 예산은 376억 9,072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 예산 규모는 △수급안정 예비비(41.5%) △ 소비 홍보(29.2%) △교육 및 정보제공(9.3%) △수급안정(7.8%) 순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 일상 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 등으로 인한 급격한 돼지가격 변동이 우려됨에 따라 돼지가격 상승기에 사업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하락기에 홍보 및 소비촉진 사업에 집중하여 연중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2년 한돈자조금 사업비 운용 계획

110억 2,822만원 | 9억 5,190만원 | 34억 9,352만원
7억 700만원 | 29억 3,500만원 | 15억 2,227만원
14억 648만원 | 156억 4,631만원

한돈자조금 사업의 문제점 파악과 경쟁력 강화

한돈자조금 성과 분석 중간 보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2021년도 한돈자조금의 성과 분석을 진행했다. 향후 한돈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우위 선점 목적으로 진행한 이번 성과 분석의 중간 보고 결과를 공개한다.

연구 진행 방향

01 소비자 인식 성과 분석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자조금 사업을 통한 한돈 인지 및 인식 변화 확인

02 소비자 행동 성과 분석
자조금 사업을 통한 소비자 구입량(의향) 변화 및 매체별 예산집행 적절성 확인

03 농가 수용성 평가
농가에서 인식하는 자조금의 효과성 및 농가의 경제적 효과 분석

04 2021년 한돈 트렌드 분석
PMI의 Trend Pick을 활용한 BUZZ 분석 실시

연구 진행 PICK!

1. 한돈의 경쟁력 강화 및 한돈 산업 시장 우위 확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향성을 탐색할 목적으로 진행
2. 기존 소비 · 홍보 중심의 성과 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향후 계획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진행
3. 2021년 한돈자조금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점검 가능

연구 조사 중간 결과

자조금 사업별 1원당 경제효과
10.57원

2021년 한돈자조금 사업 필요도
89.3%
(긍정 답변 비율)

2021년 한돈자조금 사업 만족도
94%
(긍정 62.7%, 보통 31.3%)

☑ 2021년 한돈자조금 사업별 도움 정도

» 소비홍보 76.0점
» 유통구조 71.8점
» 수급안정 73.7점
»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69.5점
» 농가 교육 및 정보제공 65.0점
» 조사연구 64.2점

☑ 온라인 홍보활동 평가 인지도

»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43.5%
» 삼겹살데이 디지털 프로모션 홍보 24.6%
» 1001 한돈데이 프로모션 홍보 16.4%
» 구글 디스플레이 등 네트워크 배너광고 11.5%
» 라이브 쿠킹클래스 홍보 5.9%
» 한돈x세븐일레븐 레시피 공모전 홍보 5.5%

☑ 광고 평가

» TV광고 전반적 호감도 71.2점
» 방송협찬프로그램(PPL) 호감도 69.3점
» 2021년 잡지/홍보기사 호감도 64.0점
» 온라인 홍보활동 광고 호감도 68.3점
» 스포츠 마케팅 홍보활동 전반적 호감도 61.9점

☑ 소비자 실태

» 소비자의 96.9%가 한돈 인지
» 한돈 마크 인지도 86.0%
» 한돈에 대한 긍정적 인식 87.5%
» 한돈인증점 인지도 62.2%
» 한돈인증점 방문 영향력 74.8점

여름철 몸보신에 좋은 한돈 선물

5월의 TV속 한돈은 모두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보여 주었다. 갑작스러운 더위와 변덕스러운 날씨에 지쳐 가는 출연자들을 위해 맛있는 반찬이 되어 주기도 하고 고생하는 아이돌에게 맛있는 몸보신용 선물이 되어 주기도 했다. 출연자들은 격한 운동 뒤에 맛있는 한돈으로 건강을 든든하게 챙길 수 있었다.

신나는 게임이 끝나고 난 뒤 맛있는 한돈 선물

JT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 5월 7일 방송에서는 위너 완전체가 출연해 형님학교 학생회장 후보에 등판했다. 후보 능력치 검증부터 싸움터가 된 청문회까지 재미있는 입담과 끼를 선보였다.

5월 21일 방송에서는 허재x허웅 부자가 출연해 형님학교 농구 대잔치를 선보였다. 춤으로 다져진 화려한 무빙과 슬램 농구까지 보여 준 이 두 방송에서 한돈이 우승상품으로 등장했다.

JTBC 〈아는형님〉
5월 7일, 21일 방송

8첩반상 쟁탈전의 메인 이벤트 한돈 구이 차지하기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강철부대2. 5월 31일 방송과 6월 7일 방송은 우리부대 보급작전 체육대회라는 명칭으로 맛있는 점심을 위한 쟁탈전이 벌어졌다. 32명의 대원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각 부대의 팀장과 막내가 나와 표창을 던져 한돈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 6월 7일 방송에서는 MC들이 번외 경기로 표창을 던져 한돈을 획득하고 전 부대원이 맛있는 점심식사를 했다.

채널A 〈강철부대2〉
5월 31일, 6월 7일 방송

미션으로 흥겨운 아이돌을 위한 선물 우리돼지 한돈

5월 5일 방송에서는 윤지성과 온앤오프 유가 동반 출연해 아돌라스쿨 홍보단장인 준케이와 이기광을 만났다. 아돌라스쿨 10대 홍보모델에 도전한 두 사람은 이 날 다양한 미션과 게임을 통해 홍보모델 자질을 검증 받았다. 5월 18일 방송에서는 첫 완전체로 출연한 DKZ가 출연해 12대 홍보모델에 도전했다. 당차고 씩씩한 아이돌은 우승상품으로 등장한 한돈을 보며 전의를 불태웠다.

U+아이돌라이브 〈아돌라스쿨: 홍보on아이돌〉
5월 4일, 18일 방송

제5기 한돈자조금 대의원 보궐선거 결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사퇴 등으로 대의원 궐위 17석이 발생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총 15개 선출국에서 17명의 대의원이 전원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번에 당선된 대의원들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2023년 11월 11일까지이다.

구분	선출구		당선인
경기	1	화성 · 시흥 · 안산 · 광명 · 의왕 · 안양	**이재형**
	2	용인	**백승조**
충북	3	진천 · 증평	**조성복**
	4	충주 · 제천 · 단양	**김병삼**
	5	괴산	**김춘일**
충남	6	청양 · 서천	**강선조**
전북	7	완주 · 전주	**이남균**
	8	남원	**소시호**
전남	9	나주 · 영암	**박삼식, 조억기**
	10	여수 · 구례 · 광양	**박건용**
경북	11	포항 · 영덕 · 청송 · 울진	**심창섭**
	12	영주 · 봉화	**김동건**
	13	구미 · 칠곡	**안완수**
경남	14	고성 · 통영 · 거제	**이영태**
	15	창녕 · 밀양	**정종철, 황정한**

삼겹살 가격 상승에도 도산 위기 직면한 농가 많아져

삼겹살 가격이 치솟고 있다. 삼겹살 가격은 5월 17일 기준 2만 8,230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가격이 2만 3,648원인 것과 비교하면 19.4% 오른 수치이다.

삼겹살 가격의 주요 상승 원인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돼지고기 외식 수요 급증으로 분석된다. 일부에서는 가축질병 영향으로 돼지 공급이 줄어 고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있으나 최근 돼지고기 공급 두수는 전년보다 많은 수준으로 통계나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문제는 삼겹살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30%는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제 곡물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돼지 사료는 옥수수가 가장 중요한 원료인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하반기부터 국제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세계의 곡창지대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마비되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1년여 만에 옥수수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한돈자조금과 한돈협회는 유례 없는 위기상황을 맞이한 한돈농가가 일시적인 돼지 가격의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돈자조금, 제1차 기획위원회 개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는 지난 5월31일(화)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돼지고기 수급안정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획위원회는 심원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최근 한돈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최근 유통 및 소비환경, 한돈산업 진단 및 향후전망 및 한돈자조금사업 등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수급안정계획(안), 22년 자조금사업 진단 및 개선방향, 한돈산업 환경분석에 따른 향후 자조금 대응방안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특히 2022년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곡물가격 상승, 원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돼지 생산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가경영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돼지 도매가격에 따른 한돈자조금 사업방향 설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하반기 가격 하락시 자조금 수급안정예비비를 적절히 활용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여 유사시 긴급 추진하는 등 자조금의 돈육수급 기능을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한편 기존 자조금사업 중 각 팀별로 업무 개선사항을 보고하고 더욱 효율적인 사업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사업을 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조금 기획위원으로는 관리위원 중 손세희 위원장을 비롯 심원용 위원(기획위원장), 배상건 의장, 이준길 위원, 오재곤 위원, 오승주 위원, 이제만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는 이형우 팀장(농경연), 서종태 단장(부경양돈농협), 정종현 전무(정P&C연구소), 김재민 실장(농장과 식탁)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참여한 외부 전문가 중 김재민 실장(농장과 식탁)은 한돈산업의 중장기적인 과제로 기후위기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내부 위원 중 이준길 위원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 소통할 수 있는 한돈자조금 홈페이지 개편에 의견을 더했다.

손세희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돈자조금이 한돈산업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배상건 의장은 기획위원회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 한돈자조금 사업이 더욱 고도화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돈몰, '전국 팔도 한돈' 기획전 진행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한돈몰'은 6월 2일부터 지역별 입점 브랜드 상품을 최대 42%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전국 팔도 한돈, 우리 돼지 한돈을 맛보다'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한돈몰에 입점한 각 도별 대표 브랜드의 상품을 각 부위별 소포장 꾸러미 세트로 구성해 다양한 부위를 고루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낮췄으며, 최소 1만원대부터 최대 4만원대까지 다채로운 구성으로 입맛이나 용도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혔다.

기획상품은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1시까지 '한돈몰(mall.han-don.com)'에서 한돈몰 회원에 한해 구매 가능하며, 금액과 상관없이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한돈몰 입점 브랜드는 100% 믿을 수 있는 한돈으로, HACCP 인증 등 까다로운 승인 기준을 거쳐 엄선되어 맛과 품질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며, "최근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한돈을 좀 더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돈자조금, 일러스트 공모전 개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7월 31일까지 지속가능한 한돈 산업을 주제로 '모두가 꿈꾸는, 다 함께 그리는 우리 돼지, 우리 한돈!' 일러스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한돈산업의 미래와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한돈산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고자 마련됐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서는 한돈닷컴(www.han-don.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참여 작품 중 주제의 적합성, 작품성, 전달성, 독창성을 고려하여 총 18점을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사)대한한돈협회 협회장상, 농협중앙회장상, 우수상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상금 규모는 약 1천만원 상당이며, 수상작은 8월 17일(수) 발표한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ESG 경영, 탄소중립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한돈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을 기대한다"며 "미술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돈자조금,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 참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서 열린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석했다.

한돈자조금은 매년 겨울 국회 생생텃밭 모임과 함께 한돈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해 온 데 이어, 올해는 참가자들에게 영양소가 풍부한 한돈 새참을 지원했다.

국회 생생텃밭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생산적인 국회 문화 조성과 도농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조성해오고 있다.

이번 개장식에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우상호 국회의원(국회 생생텃밭 회장), 신정훈 · 엄태영 국회의원(국회 생생텃밭 간사),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봉사자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채소 모종을 심고 꽃 모종 나눔 활동을 진행한 후 한돈으로 만든 삼겹수육, 잡채 등의 새참을 나누며 상생의 의미를 다졌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직접 땀 흘려 가꾸는 생생텃밭으로 하여금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며 "나아가 이번 정부와 활발히 소통해 한돈산업 가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MSY 31.9두, PSY33.3두를 기록한 생산성 1위 농장

우성팜 **이상도** 대표

우리나라 한돈농가의 평균 MSY는 18.4두, PSY는 21.5두이다 (2019~2021년 한돈팜스 사용 농가 분기별 생산실적 결과).
MSY 18두를 넘은 것도 2019년의 일로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 때문에 MSY 30두는 한돈농가에서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며 농업 선진국인 덴마크나 독일에서나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한 농장이 있다. MSY31.9두, PSY33.3두, WSY3,033kg의 성적을 자랑하는 우성팜이 그 주인공이다.

시설 규모

총2개의 돈사
약 15,000두

생산 성적

MSY31.9두 PSY33.3두

평균 총산 16.1두

평균 실산 14.2두

모돈 회전율 2.54

*2021년 기준

1999년 비육돈 2천두로 시작한 농장

이상도 대표가 양돈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99년의 일이다. 당시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동물약품회사에 다니던 이상도 대표는 양돈업에 뛰어들 생각을 하게 됐다.

"다양한 축산 분야를 생각해 봤을 때 양돈업만큼 미래가 밝은 사업이 없었어요. 특히 돼지는 생산성의 편차가 크고, 편차에 따라서 자본의 차이도 많이 났죠. 잘만 키운다면 확실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비육돈 2천두로 시작했던 농장은 2007년 새롭게 농장을 신축하면서 번식농장도 같이 운영하게 됐다. 캐나다에서 전량 수입한 모돈 560두가 시작이었다.

"모돈을 들여올 때부터 종돈장으로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GP농장으로 운영 중입니다. 후보돈은 전량 GGP농장에서 받고 있어요."

생산성 1위의 비결은 종돈 관리부터

우성팜은 여러 모로 큰 기록을 가지고 있다. 2009년 국내 최초로 WSY 3,033kg을 달성했고, 2021년에는 PSY33.3두를 기록했다. MSY31.9두, 평균 총산 16.1두, 평균 실산 14.2두, 모돈 회전율 2.54라는 기록은 국내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어도 아깝지 않다. 이 같은 성공의 비결에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투자가 있었다.

"가장 먼저 종돈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PRRS 등의 주요 질병 음성은 필수 사항입니다. 검증된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유두수를 높이고 이유 후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튼튼하게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당장 교배에 사용하지 않는 웅돈도 매주 정액을 채취해 정액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정액 관리 대장에는 채취일, 채취간격, 정액량, 정자농도, 정충 활력, 웅돈상태가 기록된다. 분만사의 모돈 사료 섭취량을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관리해서 사료 섭취량을 늘리는 방법도 연구한다.

"사료회사에서 사료 급여율 기록을 매달 받습니다. 이를 통해 사료 섭취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죠."

번식돈과 임신돈의 체형 관리는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항목이다. 번식돈의 초교배 체중과 임신돈의 비만은 연산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비만한 임신돈은 포유모돈 사료섭취량을 크게 감소시키고 체손실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체형관리를 통한 포유돈 사료섭취량을 높이고 모돈의 연산성을 유지한다.

"비육돈의 경우에는 빨리 성장시켜 돈방 회전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유 후에는 돈방 단위로 이동하여 전출하고 다른 돈방과 합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 암수를 구분하여 사육하고 출하할 때는 체중을 균일하게 선별합니다. 출하까지 올인 올아웃 유지는 기본입니다."

과감한 시설 투자와 차단 방역은 기본

돼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네덜란드 자동환기 시스템, 대용유 자동급이기, 자동 소독 시스템, 습도조절기, 쿨링패드, 돈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한 관리를 한다.

"시스템 자체를 전부 수입했습니다. 좋은 시스템은 돼지에게도 좋지만 관리하는 사람의 부담도 덜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TIP! 우성팜 이상도 대표가 전하는 사양관리

1 **기본에 충실하라**
농장에 맞는 기본 사양 관리 지침을 지키는 것은 필수입니다.

2 **환경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라**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 주민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3 **철저한 차단방역을 하라**
양돈업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외부에서 질병 요인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철저한 차단방역도 기본이다. 직원들 역시 차단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농장 입구에서 샤워 후 환복하고 돈사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다시 환복하는 것도 농장에서 정한 규칙이다. 특히 사용하는 의복과 장화의 색깔도 청결지역, 준청결지역, 외부방문자, 퇴비장으로 나누어 통일했다. 이를 통해 차단 방역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돼지에 직접 접촉하기 위해서는 샤워와 환복은 물론 4차례 신발을 갈아신어야 합니다. 교차 오염이 의심되는 모든 구역에서 신발을 갈아신어 교차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렇게 해야 질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소독하고 외부인의 방문도 최소화한다. 농장 내부는 자체 차량으로 다니고 출하할 때는 출하차량을 따로 부른다. 농장 내부 자체 차량으로 상차해서 농장 외부에서 출하 비육돈을 외부 차량으로 옮겨 실어서 출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한 번 외부에 나간 차량은 3일 동안 농장에 들어올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도 생산성은 직원이 만드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생산성 유지는 쉽지 않아요. 의사소통을 자주 하고 자율적으로 일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돈산업은 우리의 미래

"현재 우성팜은 HACCP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도 준비중이에요. 현재 시장에 친환경, 무항생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도 준비를 해야죠."

이상도 대표는 농업의 가치는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농업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농업, 그 중에서도 축산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먹거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때에 양돈업은 더욱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도 대표는 이를 위해서 젊은 층의 유입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 무사히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산업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부모가 양돈업을 하지 않는 이상 젊은층이 자체적으로 유입되기란 힘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돈자조금이나 한돈협회에서 외국처럼 시범농장 등을 통해 젊은층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함께 한돈자조금에서 지부에서 하는 활동을 더 다양하게 서포트해 주면 좋겠다는 소망도 내비쳤다.

"한돈자조금에서도 소비 촉진을 위해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적인 사용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지부에서 하는 활동에 좀 더 자율성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 그 중에서도 축산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먹거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때에 양돈업은 더욱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덕고깃간 역삼본점 **유판성** 부장

특허 화덕과 한돈의 조합, 오감만족을 실현하다

고깃집의 포화 속에서 차별화 전략을 강화하며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곳이 있다. 화덕고깃간은 3년여 동안 연구에 매달린 끝에 특허를 획득한 전통 황토 화덕을 사용해 고기를 굽는다. 고기의 풍미와 질을 극대화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맛과 멋을 동시에 꾀하는 화덕고깃간 역삼본점을 찾았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9길 17

삼겹살 1인분 16,000원
특목살 1인분 16,000원
꼬들살 1인분 16,000원

10:00~22:00

화덕고깃간의 비법

전통 화덕으로 특별한 맛과 경험 선사

화덕고깃간에서는 기존 고깃집에서 볼 수 없었던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테이블마다 화덕이 설치된 것인데, 황토를 사용한 전통 방식을 그대로 구현하며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화덕고깃간은 3년에 걸쳐 실내 황토 화덕을 연구 · 개발하며 자체 경쟁력을 확보했다.

"100% 황토로 만들어져 인체에 무해한 것은 물론 확연히 다른 고기 맛을 선사합니다. 500도 고열에서 국내산 참나무 장작 훈연으로 고기를 초벌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기름기는 쏙 빼고 육즙을 가두게 되는데, 2차로 무쇠 솥뚜껑에서 고기를 구우면 한층 풍부한 육즙과 쫄깃한 식감을 만끽할 수 있지요."

초벌구이로 고기의 맛과 식감을 배가시키는 동시에 화덕에서 고기가 구워지는 과정을 볼 수 있어 시각적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고기에 대한 진심은 품질 자신감으로

화덕고깃간은 역삼본점 등 전국 8개 가맹점을 갖추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유판성 부장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원재료다. 20일 동안 숙성한 프리미엄급 국내산 고기만 사용하는데,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돈만 고집하고 있다.

"건강하고 신선한 원재료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애초에 다른 고기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한 국내 농가의 한돈은 탁월한 맛뿐만 아니라 쫄깃한 식감, 풍부한 육즙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선도와 유통 과정에도 신뢰가 가니 한돈을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지요."

본연의 맛에 충실하면서 사이드 음식과의 페어링을 통해 만족감을 선사하는 중이다. 최상의 명이나물로 엄선해 만든 명이절임과 쌈장, 소금, 카레가루, 고추냉이를 제공해 소스에 따라 다채로운 고기의 감칠맛을 느끼도록 했다.

도심 속 맛있고 아늑한 쉼터

인테리어에서는 맛있는 쉼터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도심 속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향토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정서적 만족감을 선사하는 것. 옛날 시골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정취를 고스란히 구현해 전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다. 유판성 부장은 화덕고깃만의 신념을 지켜나가되 한돈의 매력을 널리 전파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매장 앞을 지나가다 전통 화덕과 한돈인증점 시그널을 보고 들어오는 고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질적 향상을 꾀하면서 고객에게 늘 '믿고 먹는 한돈인증점'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화덕고깃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천천히 가맹점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후계농의 미래를 생각하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유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청년 농업인 등 미래세대 농업을 양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돈산업은 타 분야에 비해 세대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적지 않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에코팜 노범균 대표에게 후계농의 생각에 대해 들어보았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에코팜 **노범균** 대표

Q. 본인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A. 현재 저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에코팜(이하 에코팜)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범균이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세무사로 일을 했고요. 에코팜에서 일을 하게 된 건 2010년의 일입니다. 당시 농장 규모가 커지면서 외적인 일이 많아져서 회계를 하기 위해 들어왔어요. 대표를 맡게 된 건 2019년의 일입니다.

Q. 농장 경영에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A. 양돈업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을 했다 보니 종돈부터 출하까지 직접 부딪히는 일이 전부 막막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 ASF로 인해 농장에 있는 모든 돼지들을 살처분하게 되면서 농장을 모두 비우게 됐는데 그 뒤 2021년까지 2년을 수입 없이 버티게 됐어요. 직원들을 하나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 인건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다시 입식이 이루어졌고 서서히 회복중입니다.

Q.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A.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돼지를 키우다 보니 쉬는 날이 없잖아요. 이렇게 쉴 수 있을 때 역량을 키우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간부 2명은 덴마크로 연수를 보냈고 3개월 정도 다 같이 쉬다가 8대 방역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같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설치를 했기에 재입식 허가 검사를 1호로 받을 수 있었죠.

Q. 따로 교육을 받으시나요?

A. 제가 있는 연천 지역에 2세농, 후계농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데 이 자리에서 주제를 달리해 토론하고 컨설팅을 받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들어요. 12명이 소규모로 듣는 교육이다 보니 많은 토의가 오고 갑니다. 이 모임에서 배운 게 실질적으로 농장 경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외에 온라인으로 혼자 교육을 듣기도 하고 도움이 될 만한 강의가 있으면 참여해서 듣는 등 지금도 공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Q.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A. 냄새는 코로 맡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맡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조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농장에 잔디를 깔고 나무를 심고 가꾼 건 눈으로 맡는 냄새를 차단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냄새를 경감하기 위해 미생물도 꾸준히 먹이고 있습니다. 콤포스트를 사용하면서 나는 냄새를 잡기 위해 냄새 저감 시설을 다시 구축하기도 했어요. 지역 활동도 많이 합니다. 마을 행사에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요. 이렇게 노력한 덕분인지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Q.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A. 저는 다행히 아버지와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의 경우 윗세대는 청년이 뭘 모른다고 생각하고, 청년은 윗세대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한다고 생각하는 등 마찰이 있는 경우를 봐 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온전히 농장을 물려주고 물려받기 위해서 윗세대는 기한을 두고 청년을 트레이닝한 다음 물려주는 걸로 끝내고, 청년들은 그 기간동안 월급을 받는 직원처럼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세무사 경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해 주기도 합니다.

코로나 백신 맞는다고 코로나 안 걸리나?!

2013년 11월 새로운 PED항원타입(G2b그룹, 기존 PED항원은 G2a그룹, 기존 PED백신주는 G1b그룹)의 유행이 큰 이슈였다. 당시 기존의 PED 백신들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소문과 함께 농장에서 인공감염이 무분별하게 시행되었다. 이후 새로운 항원 타입의 사독백신이 출시되면서 PED 발생 보고가 감소할 수 있었다.

이경원 원장

스마트피그클리닉
010-6270-7210
dukelee72@hanmail.net

1

연중 PED발생 우려시기와 감염증가 반복

KAHIS(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의 2000년 이후 PED 발생 보고에 따르면 PED는 매년 11월~ 2월 사이 발생율이 높고, 또한 2013년이후 매 4년 주기로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돈농가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쥐나 고양이 또는 차량(돈분,출하,사료차량)에 의한 감염사례가 높으며, 돈분차량, 하수종말처리장 등과 같은 돈분과 관련된 교차점이 있는 농장들 간에서 차단방역이 느슨하거나 어려운 시기(동절기)에 전파/감염의 위험이 증가한다.

2

PED백신 불신 농장의 면역부재, 인공감염 위험성

일부 양돈장에서는 PED백신을 수차례 접종하는 것이 돼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물론 비용이 비싸고 방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의식에 백신 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쉽게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경우에도 백신을 3회 이상 맞아 충분한 방어력을 가져도 코로나19에 걸리기도 한다. 또 델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오미크론에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과 위중증율(사망위험율)이 낮아지고 전파력도 낮아져 감염력이 줄어들기에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것이다.
인공감염은 비용 지불이 거의 없이 자연 면역을 획득할 수 있겠으나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양돈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PED바이러스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며 변이도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3

백신결정 시 어떤 백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PED백신을 농장에 적용하기로 했다면 어떤 백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앞서 말했듯이 2013년 이후 PED항원 타입은 G2b타입으로 바뀌었기에 G2b타입백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로는 G2b타입 생독백신(중앙백신연구소, 먹이는PED-X라이브) 하나이며, 사독백신은 여러회사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 중 중화항체형성능과 지속력이 좋은 제품으로 선택한다.

4

만성(상재)화 PED 예방

만약 어쩔 수 없이 인공감염을 실시한다면 인공감염은 최초 1회만 실시하고 3주 후에 3주 간격으로 2회 PED사독백신을 일괄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매 분기 추가 사독 일괄접종을 권장한다. 인공감염 후 2주간 분만치 자돈의 경우는 분만 즉시 들어내기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7산차 이상 모돈의 출생자돈은 더 그렇다. 구입후보돈의 경우 도입직후 먹이는 PED-X 라이브를 먹이고 2주 후, 5주 후에 PED사독백신을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좋다.

(2산차까지는 면역력이 잘 생기지 않음) 만약 후보돈을 자체선발하는 경우에는 더 철저한 방역/위생관리와 함께 보다 강화된 백신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발 후 먹이는 PED-X 라이브와 PED사독백신 2회를 하고, 1산~3산차 분만 전 모돈에 대한 사독백신 1회(분만 1주전) 추가를 권장하는 바이다. PED종료 후 발정이나 수태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7산 이상과 문제모돈의 빠른 교체가 필요하다.

5

피트비우기와 피트 내 PED바이러스 모니터링 필요

면역력이 형성된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들이 분만사 내에서 PED설사가 없이 잘 자라기 시작했다면 돈군 내 PED바이러스량(공격력)을 줄이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피트비우기이다. 분만사가 안정되면, 포유기간 중 PED문제가 없던 자돈들이 넘어갈 돈사에 대한 피트비우기를 미리하여 입식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유직후 자돈들이 PED로부터 무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유자돈사에서 포유자돈에서처럼은 아니지만, "대장균, 로타바이러스"와 간간히 PED바이러스성 설사가 나온다면 이는 아직 이유자돈사에 PED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더 철저한 피트비우기와 올인올아웃에 치중해야 한다.

KEY POINT

① PED백신은 모든농장이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 공격력 감소, 방어력 증가
② PED백신 선택도 중요 ⇨ 생독, 사독 ⇨ G2b항원의 좋은 중화항체 생성능, 지속력
③ 후보돈을 포함한 3산 이하 모돈과 7산 이상 노산차들의 면역력 중요 ⇨ 피해 크다.
④ 산차구성도 늘 살피고, 좋은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⑤ 자체선발 후보돈은 PED 재발병의 위험성 높다.
⑥ 인공감염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 만성(상재)화 위험높다. 하더라도 최초 1회만
⑦ 인공감염 할 경우 감염 후 2주 이내 생산되는 포유자돈은 "들어내기" 필요
⑧ 감염증상 증가 시 번식돈군내 살바이러스제 음수투여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사용을 권장
⑨ 분만사 10일령 이하 설사자돈 도태, 10일령 이상 자돈 강제이유 후 설사 그치면 재포유
⑩ PED 안정화되면 전돈사 내 슬러리피트 내 PED항원 모니터링하고, 피트비우기
⑪ 차단방역/정기적인 PED백신 철저히 유지
⑫ 만약 자돈사에서 지속적으로 PED성 설사문제 시 자돈 이유 시 "먹이는 PED-X 라이브" 경구투여

한돈 삼겹살 활용 요리 ① 한돈 향채조림

삼겹살은 지방의 고소한 맛과 육단백질의 구수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부위이다. 대개 아무 양념 없이 구워서 소금을 찍어 먹는 게 보편적이지만 편육, 볶음 등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재료

한돈 통삼겹살 300g
조림장 물 1컵, 청주 3큰술, 설탕 1½큰술, 간장 4큰술, 물엿 2큰술
향채 마늘 5쪽, 생강 조금, 양파 ⅓개, 대파 ½대, 식용유 2큰술, 마른고추 1개

조리법

1. 한돈 통삼겹살은 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물기를 제거한다.
2. 향채 재료는 모두 채썰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향채를 볶아 향이 나면 ①의 한돈을 넣고 갈색이 나게 지진다.
3. 조림장 양념을 모두 섞는다.
4. ②의 한돈 표면이 갈색이 나고 속이 익으면 조림장을 넣고 조린다.
5.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② 한돈 대패삼겹 카레구이

35페이지 돼박 선물 이벤트에 참여한 독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한돈 HMR 레시피 코너에 소개된 '한돈 향채조림' 밀키트를 보내 드립니다.
응모방법은 35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재료

한돈 대패삼겹살 300g
밑간양념 양파 30g, 마늘 30g, 후추 조금, 소금 조금
카레양념 카레가루 1큰술, 물 4큰술, 설탕 $\frac{1}{2}$큰술, 간장 조금, 올리브유 조금

조리법

1. 밑간양념은 모두 넣고 믹서기로 곱게 간다.
2. 한돈 대패삼겹살에 ①의 밑간양념을 넣고 섞어 10분 숙성한다.
3. 카레양념을 모두 섞는다.
4. 팬에 대패 삼겹살이 갈색이 나게 굽고 팬에 있는 기름을 키친 타올로 제거한 후 카레양념을 넣어 볶듯이 섞는다.
5. 영양부추, 양파 등 채소를 곁들여 먹는다.

한 권으로 보는 돼지고기 역사와 문화

#정보서 #Meat #돼지고기 #육류사전

고기매니아들의 필독 도서 추천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두 권이 출간됐다. 평생 고기를 연구해 온 축산식품분야 과학자들이 쓴 《지리와 문화의 관점으로 보는 고기의 역사》와 국민밥상지킴이 백종원의 《백종원의 肉 : 돼지고기 편》이 그것이다. 이 책들은 단순히 먹고 즐기는 고기얘기에서 벗어나 인문학적으로 고기 문화를 설명하고, 부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고기에 진심인 백종원이 알려 주는

백종원의 육: 돼지고기 편

알에이치코리아

국내 20여 개 외식 브랜드, 2,0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더본코리아 백종언 대표가 육류 정보서를 출간했다. 《백종원의 肉 : 돼지고기 편》은 최고의 육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수많은 시행 착오 끝에 완성한 육류 정보서이다. 2013년 출간된 《백종원의 肉(육)》의 개정판으로 돼지고기 한 종류에만 집중해 내용을 밀도 있게 다루는 한편 최신 연구 및 외식업 트렌드를 대폭 반영했다. 이 책에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돼지를 낱낱이 해부해 부위별 활용 지식을 알려준다. 각 부위의 이름과 특징, 돼지 발골 및 해체, 분할, 정형, 상품화 요령을 상세히 기술해 초심자도 쉽게 따라하면서 부위별 손질법을 익힐 수 있다.

축산식품학자들의 고기 소비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상상력

지리와 문화의 관점으로 보는 고기의 역사

팜커뮤니케이션(협동조합 농장과 식탁)

국내 식육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축산식품분야 과학자들이 고기와 관련한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한 책을 펴냈다. 《지리와 문화의 관점으로 보는 고기의 역사》는 인류의 고기 소비의 필연성을 지리와 문화, 진화생물학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과학자들은 맛과 영양, 기능성에 집중한 고기 소비 문화에서 한발짝 물러나 인문학적 상상력을 결합했다. 지리가 식문화 그 중에서도 고기를 소비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동서양의 고기 문화 차이, 대륙별(지역별) 고기 종류와 생산량의 차이를 발견하는 과정이 담겼다. 또 미래의 고기 소비에 대해서도 조망했다.

돼 박
선 물

이벤트 [인증샷]

한돈자조금 소식지 <한돈자조금>

인증샷 찍고! 한돈 받고!

▸ 응모방법

휴대폰

❶ 카카오톡 친구 또는 채팅 탭의 '상단 검색' 에서 **'한돈'** 을 검색합니다.

❷ 플러스친구 검색 결과에서 **'한돈'** 플러스친구와 친구를 맺습니다. (pf.kakao.com/_RrVul)

❸ 인증샷과 이름/연락처/주소를 써넣어 전송하면 이벤트 응모 끝!

메일 designshinhwa@naver.com으로 응모

＊응모 시에 주소(우편번호 포함)와 휴대폰 번호를 꼭 함께 남겨주세요.

이벤트 [Quiz]

이 텃밭은 도시농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부터 국회 인근에 약 120평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매년 겨울에는 텃밭에서 가꾼 작물로 김치를 담가 취약계층에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지난 5월 13일 진행된 텃밭 개장식에서 한돈자조금이 새참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텃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생생텃밭　② 상생텃밭　③ 우리텃밭　④ 국회텃밭

[인증샷]과 [Quiz] 이벤트에 응모하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 한돈 밀키트 세트〈P33 참고〉를 보내드립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리뷰를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주세요!

기간	2022년 7월 1일까지
발표	2022년 7월호 한돈자조금 소식지 및 개별연락
문의	02-324-6852

▶ **지난호 이벤트 당첨자**

한돈 밀키트 세트

인증샷	김＊용(3365), 이＊은(9271)
퀴즈	왕＊일(0949)

＊5만원 이상 경품에 대해서는 한돈자조금 소식지 제작 대행사인 디자인신화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제세공과금 납부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축산차량은 가급적 농장 안으로 진입 금지

차량의 바퀴, 차량하부 등에 묻어있는 흙 등 유기물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소독을 실시하며, 운전석은 간이 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합니다.

농장 작업 전 반드시 손 씻기

ASF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돈사마다 작업장화를 구분 사용

돈사 외부용 장화를 별도로 두고, 돈사마다 장화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장화는 정기적으로 세척 및 건조를 실시합니다.

축사 내외부 주기적 소독

ASF 유효한 소독약을 선택하고 희석배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농장 외부에 빈틈없이 울타리 설치

농장 외부에 견고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축사 경계선에 골고루 사용합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ASF 바이러스는
매개체/차량, 물품/사람으로 인해 농장내로 유입됩니다.
ASF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농장을 지켜냅시다.

감염의심축(고열, 급사 등) 발견 시
지자체 방역 부서 신고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KOREA PORK PRODUCERS ASSOCIATION | 한돈자조금